

“송~가인이어라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한당께요~”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 다섯 번째 주자

“전남에서 자라며 배웠던 진도 판소리가 제 트로트의 바탕입니다. 내 고향 전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남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파워풀한 목소리로 트로트 열풍을 일으키며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여신 송가인씨가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을 이어갔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홍보를 위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 송가인씨는 국민배우 김수미, 김향식 전 총리, 원조 한류스타 김연자, 국민 안내양 김경연 씨에 이어 다섯 번째 응원 주자로 나섰다.

송가인씨는 진도 출신으로 케이팝방송 트로트 경연대회 우승을 통해 인기몰이를 시작해 트로트 여신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난 2019년 전남도 관광 홍보대사, 진도군 홍보대사, 2021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전남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남도장터 상품권, 친환경농산물꾸러미와 함께 예수 갖가지, 나주배, 영광 굴비 등 전남만의 매력이 담긴 농수축산 특산품과 천연염색 체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등 다양한 체험·관광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겐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제공한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서수용 더블에스힐 회장, 전남대 용봉경영자대상 수상

안락한 주거문화 정착 기여

(주)더블에스힐 서수용(사진) 회장이 전남대학교의 제19회 용봉경영자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제19회 용봉경영자대상 수상자로 서 회장을 선정하고 오는 10일 오후 4시 전남대 용지관 3층 광주은행 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은 서 회장이 20여년동안 중흥장례식장과 광주역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주거문화 혁신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주택사업을 통해 안락한 주거문화 정착과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경영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역사회 기부 및 봉사활동 등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를 실천하는 참 경영인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 회장은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자과정 총동창회장을 맡아 대학과 기업간 산학협력네트워크강화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고향인 담양에 1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건립을 진행하고 있고 모교인 한계초등학교에 6년간 수억원을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에도 앞장서고 있다.

용봉경영자대상은 전남대 경영전문대학원이 2001년 제정한 상으로 경제발전 기여도, 경영성과, 경영철학과 리더십, 사회봉사 활동 기여도 등을 심사해 매년 1명씩 선정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진 출신 농협 임직원들, 고향 사랑 기부 500만원



강진 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지난 1일 강진군에 500만 원의 고향 사랑 기부를 했다. (사진) 기부자는 이덕수 농협중앙회 사외이사, 서옥원 농협 캐피탈 대표이사, 김남현 하나로유통 동탄센터 지사장이다.

군동면 출신인 이덕수 사외이사는 “이번 기부가 강

진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마량면 출신 서옥원 대표이사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들은 고향 사랑 기부를 통해 받은 답례품을 모두 강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이금재 전 광주체육회사무처장 별세



광주-전남 지역에서 맨 처음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한 데 이어 여러 팀을 창단했고,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지낸 이금재(사진) 씨가 지난 5일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6세.

1946년 7월생으로 보성이 본격적인 고인은 조대부고에 핸드볼 선수로 입학했지만 1963년 2학년 때 배드민턴으로 종목을 바꿨다. 조선대에서 배드민턴 선수 생활을 한 뒤 1973년 광주 중장중학교에 배드민턴팀을 창단했다. 전남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를 거쳐 1983년 2월에는 김학석(2022년 별세) 전무이사와 함께 심판이사로 기용됐다. 1990년대 전남체육회 운영과, 광주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려인마을에 후원물품 전달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차은선)는 최근 개원 33주년 센터 개원기념일을 맞아 지난 6일 고려인마을 바깥개비곶터 공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위해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공)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0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빠이 좋아! 좋아! 스페셜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열린채널 4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	00 두뇌공조(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프린세스 바리	00 애니갤러리 30 안녕 자동차 45 헬로키티 12 봄바
12	00 KBS 뉴스 12	15 배틀트립 2(재)	00 12 MBC 뉴스 25 양로실업직접 다큐 50 내모세모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내모세모
1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티 글로벌 동물 뉴스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2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교육·사회·문화)			00 뉴스브리핑
13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문예공방 3(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14	00 사사건건	00 UHD 환생스페셜 2(재)	55 5 MBC 뉴스	00 최강 1교시(재) 55 닥터 365
1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내 친구 반인반어 15 소스리아 -사라진 레시피카드를 찾아서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1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마이 로컬 텔레비전
1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18	30 내 눈에 콩깍지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19	00 KBS 뉴스9	50 연모(재)	00 일타강사	00 골때리는 그녀들
2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30 라디오스타	40 순정파이터
21	30 KBS 뉴스라인	00 9층 시사극 40 세상의 모든 다큐		
22	10 시사기획 창(재)	35 아이 러브 스포츠	10 꼭두의 계절(재)	20 7학년 주식회사(재) 50 상심! 고향발곡(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히어로 씨클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워터즈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정글 플래닛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극한직업	19:30 한국의 둘레길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50 건축탐구-집
08:00 똥덩어리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4:45 한국의 둘레길	(겨울왕국, 캐나다 서부 -눈부시게 찬란하게, 로키)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푸르기 전사들	<함께하니 행복해> 3부 하츠 마을의 네 내재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큐프라임
09:20 시몽	16:15 페퍼 피그	22:45 인간과 바다
09:35 타타와 쿠마	16:25 슈퍼퍼퍼 잉글리시(재)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6:40 똥덩어리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8일(음 1월 18일 丁酉)

<p>子</p> <p>36년생 괜히 굶어서 부스럼 낼 것까지는 없으니 잡자코만 있으면 된다. 48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60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72년생 뜻밖의 환신을 보이는 이를 경계하라. 84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라. 96년생 심혈을 기울인다면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68</p>	<p>午</p> <p>42년생 서막에 이르자 마자 즉시 가락이 잡히리라. 54년생 이루어지기는 하나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66년생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78년생 갑갑해 왔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90년생 더불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다. 02년생 결코 쉽지 않은 암을 앓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8, 88</p>
<p>丑</p> <p>37년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49년생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절정에 이르리라. 61년생 여기저기에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잘 살피고 다니는 것이 무난하리라. 73년생 과용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날게 하리라. 85년생 보기 드문 형태 앞에서 놀라리라. 97년생 우연히 맛닥뜨릴 수도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19, 66</p>	<p>未</p> <p>43년생 뜻이 있다면 앞뒤 재지 말고 기탄없이 제기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55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67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79년생 해독을 것을 버린다면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다. 91년생 시일을 끌어 왔던 바가 완성되어가는 동시에 와 있느니라. 03년생 자연히 해결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7, 71</p>
<p>寅</p> <p>38년생 탈출구를 모색하더라도 쉽지 않은 암을 앓을 것이니 각오하고 입하라. 50년생 친분과 신용도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고 냉철하게 임하라. 62년생 규모와 상관 없이 진행하는 것이 옳다. 74년생 과잉 반응을 보이지 말고 중용의 도를 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6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98년생 시류에 편승하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31, 74</p>	<p>申</p> <p>44년생 일상적인 구조나 속성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56년생 모순점을 해결한 후에 조치할 일이다. 68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일관 결과를 보인다. 80년생 특별한 형태로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92년생 길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의 부실함이 상당하다. 04년생 길래가 거침없이 펼쳐지리라. 행운의 숫자 : 22, 91</p>
<p>卯</p> <p>39년생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판국이다. 51년생 기왕이면 결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 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75년생 지속적으 이글어 가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음을 알라. 87년생 작은 불뿔이 튀어서 큰 불이 될 수 있는 조짐이다. 99년생 매사가 순조롭다. 행운의 숫자 : 07, 78</p>	<p>酉</p> <p>45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57년생 전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문제이다. 69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81년생 빈틈이 없어야만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느니라. 93년생 확대 해석해서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05년생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67</p>
<p>辰</p> <p>40년생 중간에서 이리저리 저리저리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52년생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다. 64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76년생 성사 되는 쪽으로 가락이 잡힌다. 88년생 박차를 가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 00년생 다시 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지도 모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37, 76</p>	<p>戌</p> <p>34년생 먹구름이 사라지면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46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볼 일이다. 58년생 망설일 수도 있으니 관리를 잘 하라. 70년생 듣기 좋은 말이 돌이 될 수도 있다. 82년생 도모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기이다. 94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행운의 숫자 : 29, 86</p>
<p>巳</p> <p>41년생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53년생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겠다. 65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로다. 77년생 국면을 이끄는 제반 장치들이 필요하다. 89년생 가락이 잡히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01년생 지금까지는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더 나아가야 할 길목이다. 행운의 숫자 : 34, 94</p>	<p>亥</p> <p>35년생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행복을 유지하게 되리라. 47년생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하리라. 59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71년생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날이다. 83년생 타격을 받지는 않으니 무시해도 된다. 95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97</p>